

# 시트콤을 활용한 정형화된 배열(Formulaic Sequences)의 효과적인 학습 방안

김혜정

(국민대)

**Kim, Hye Jeong. (2018). Learning formulaic sequences using a sitcom in a second-language classroom.**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1), 119-14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effective approaches to the acquisition of formulaic sequences using a sitcom in a classroom and to consider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learning and teaching using sitcoms. To find out what teachers should focus on when using sitcoms as learning material in their classrooms, this study consists of two groups of subjects: an experimental group that focuses on the story, context, and situation of characters in a sitcom; and a control group that focuses on linguistic analysis and grammatical explanation of sentence structure. The results show that teaching using the story and context of a sitcom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learning formulaic sequences than linguistic analysis and grammar. Visual media such as sitcoms have the substantial advantage of having their own stories and diverse situations in which characters are placed. Teaching and learning formulaic sequences using visual media can be beneficial as a way to connect them with the story and its specific situations. Formulaic sequences and specialized patterns contribute to a speaker's fluency in communication. It is necessary for learners to notice and recognize formulaic sequences and to try to acquire them.

**주제어(Key Words):** 정형화된 배열(formulaic sequences), 문맥(context), 상황(situation), 줄거리(story), 영상 매체(visual media), 시트콤(sitcom)

## 1. 서론

제 2언어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진정성 있는 학습 교재로서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상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영상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거론하지 않

아도 영화나 미국 드라마는 제 2언어를 학습하는 많은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자리 잡았다(유도형, 2015). 하지만 교수자들이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영화를 활용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본 연구는 정형화된 배열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정형화된 배열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로 구나 일관성 있는 의미적 단위(coherent semantic units)로 나타나는 여러 단어로 된 표현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정형화된 배열이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처리되는 언어 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들인 *How are you?*나 *What's your name?*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이다. 모두 세 네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습자들은 *How are you?*나 *What's your name?*을 언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용 빈도수가 높으며, 일관성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화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단어의 배열에 대한 용어는 어휘 청크 (lexical chunks), 언어(collocations), 조립식 문형(prefabricated phrases), 정형화된 언어(formulaic language), 어휘 덩어리(lexical bundles) 등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주를 모두 아울러 정형화된 배열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정형화된 배열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일련의 배열로서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며, 언어의 중요한 요소이고 제 1언어와 제 2언어 모두에서 언어가 사용되고, 처리되고, 습득되는 방식에 매우 기본적인 요소이다(Meunier & Granger, 2008; Schmitt, 2010; Schmitt & Carter, 2004; Wray, 2002, 2008). 따라서 이러한 정형화된 배열을 제 2언어 학습자들이 많이 알아두면 들수록 언어 학습의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이다.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그 동안의 다양한 연구는 그것들에 대한 정의와 범주, 정형화된 배열의 발달 과정, 제 2언어 속에서의 기능,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과 화용적 역할 등을 다룬 연구가 많다.

Alali와 Schmitt(2012)는 정형화된 배열이 대화와 담화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을 가르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연구가 특정 텍스트나 제 2언어 학습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상 자료를 활용한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 자료, 특히 시트콤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배열에 대해 학습할 경우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효과적인지 그 효율적인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제 2언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시트콤을 포함한 영상 자료를 이용한 정형화된 배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트콤을 제 2언어의 학습 자료로 활용할 경우 정형화된 배열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언어 형식과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는 언어적 분석의 접근

방식과 시트콤의 줄거리 내용을 이용한 상황과 문맥 중심의 접근 방식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언어적 접근 방식은 어휘와 문법적 규칙, 문장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고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고 줄거리 중심의 접근 방식은 시트콤의 내용과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비교를 통해 시트콤과 같은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정형화된 배열을 익히기에 유용한 학습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시트콤을 이용한 정형화된 배열 학습 시 시트콤의 줄거리, 시트콤 속 상황이나 문맥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가?
2. 시트콤을 이용한 정형화된 배열 학습 시 문장 구조 분석이나 문법 설명과 같은 언어적 형식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가?
3. 시트콤의 줄거리, 상황이나 문맥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과 문법 설명과 문장구조 분석을 통한 언어적 형식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가?

## 2. 문헌 연구

Erman과 Warren(2000)은 정형화된 배열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그 어떤 단어보다도 원어민들이 훨씬 선호하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Wray(2000)는 정형화된 배열의 수가 개별적 단어의 수와 동일하거나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에 도달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 부족과 그것의 사용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Bishop(2004)은 제 2언어 학습자들이 어휘(lexicon)와 관련해서 직면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정형화된 배열의 습득이라 하였다. 제 2언어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 정형화된 배열이 제대로 학습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Wisconsin-Madison 대학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44명의 상 중급 ESL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자각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그는 학습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만큼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정형화된 배열을 쉽게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정형화된 배열을 인쇄 상 눈에 띄게 색깔이나 밑줄을 그어서 표시한 것은 학습자들의 어휘 항목에 대한 증진된 이해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De Bot, Paribakht, 그리고 Marjorie Wesche(1997) 또한 친숙하지 않은 어휘형태(unfamiliar lexical form)를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정형화된 배열의 형태만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의

식적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배열의 발달과 제 2언어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있을수록 언어와 구동사와 같은 정형화된 언어 사용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Hsu, 2007; Laufer & Waldman, 2011; Lewis, 2009), 언어 능력이 상위권인 학습자들은 원어민에 가까운 제 2언어의 정형화된 형태를 마스터 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Khodadady와 Shamsaee(2012)는 정형화된 배열의 사용, 말하기 능력, 스피치 유창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여 정형화된 배열이 학습자의 스피치 유창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su와 Chiu(2008)는 정형화된 배열 범주에 들어가는 언어의 시험 점수와 말하기 시험 점수 사이의 비례 관계를 발견하여 언어를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말하기 기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Keshavarz와 Salimi(2007)는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지식과 일반적인 언어 능력 사이의 비례 관계를 발견하였다.

정형화된 배열을 가르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Jones와 Haywood(2004)는 밑줄 치거나 진하게 표시하기와 같이 강조한 정형화된 배열과 강조하지 않은 정형화된 배열을 통합하여 읽기 단락에 첨가하였고 말하기나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Alali와 Schmitt(2012)는 PPT 슬라이드에 번역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을 소개하였다. 문어적 학습을 위해 빈칸 채우기 활동지를 사용하였고 구어적 학습을 위해 구어 반복(verbal repetition)을 사용하였다. Bardovi-Harlig와 Vellenga(2012)는 문맥화 된 입력(contextualized input)을 사용하여 짝 활동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 자각하기를 가이드 하였다. 다양한 기능이 담긴 관습적 표현을 지도하며 자각하기 수업 활동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의 사회화용적 기능을 학습시켰다.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 과업으로 에세이 쓰기(Jones & Haywood, 2004), 구두로 역할극 연습하기(House, 1996), 의견 차이 좁히기 활동(Nemeth & Kormos, 2001) 등이 소개된 바 있다. Takimoto(2006)는 구두 역할극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의 자유로운 말하기 활동을 유도하고 작문 담화 채우기 과업(DCTs: discourse completion tasks)을 통해 쓰기 활동을 병행하였다. Bardovi-Harlig와 Vellenga(2012)는 컴퓨터로 하는 구두 담화 완성 과업(DCT)을 이용하였다.

제 2언어의 다양한 학습 과업을 위해 영상 자료를 활용할 경우, 문법과 문장 구조를 포함한 언어적 접근에 중점을 두는 방식과 영상 자료 속 상황과 문맥을 강조하는 내용 중심의 방식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llis(2002)는 문법적 지식과 그것의 실질적인 용법과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학습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Ellis(1993)는 진정성 있는 영상 자료의 유용성을 언급하면서, 영상 자료에는 특정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혜정(2017)은 영화 *라이온 킹*(Lion King)을 활용한 어휘와 문법 학습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는데, 비교급과 수동태와 같은 문장 구조는 자칫하면 매우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지만 영화를 활용하여 접근하게 되면 관련 문법 학습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Kim(2011)은 문법 학습에 있어서 영상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조사하면서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 전통적인 문법 학습 교실에서 영상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65명의 피험자들이 영화를 활용해서 문법 구조에 익숙해지도록 지도받았고 그 결과 학습자들은 문법 용법(grammatical usage) 이해하기, 유용한 어휘 항목 익히기와 같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을 익히는데 학습 동기가 매우 높게 부여되었으며,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한 문법 지식을 사용해서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문장을 구성해 내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영상 자료를 활용한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포함한 언어 중심의 학습 방법과 더불어 영화 내용이나 문맥 중심의 학습 방법 또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지현과 이자원(2014)은 미드활용교수법을 논하면서,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그 내용과 관련된 루틴을 찾기가 편해진다... (영화) 내용과 루틴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루틴을 연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기”(p. 176) 때문에 “미드를 활용해서 (영화)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 미드는 연속적으로 방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루틴의 연습이 용이하다”(p. 176)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기존의 어휘 접근법과의 비교를 통해 내용과 연결되어 선택된 덩어리 표현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Oller(1983)는 에피소드 구성에 스토리가 내제되어 있는 것은 학습자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고 본인의 지식으로 내재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Martínez(2007)는 내용이나 스토리는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의사소통 참여로의 유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언어 발달에 좋은 방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Herron, York, Corrie, 그리고 Cole(2006)은 제 2언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스토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듣기 기술과 함께 문법 지식 또한 함께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스토리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 2언어의 언어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Ellis와 Brewster(1991)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스토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경우 문맥의 제공과 함께 어휘나 문장구조도 함께 강조할 것을 충고하였다. 등장인물과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연결 지어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와 더불어 언어적 목적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어휘와 문장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학습자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10주간 진행되었으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실시되었다. 연구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졌으며 한 번 할 때 두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개의 반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각 실험반(32명)과 통제반(37명)으로 설정하였다. 본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미 입학할 때 토익 시험을 기준으로 중위권으로 규정된 반들이어서 실험반과 통제반의 언어적 수준 차이는 비슷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토익 시험이 아우르는 전체적인 언어 능력보다는 정형화된 배열이라고 하는 큰 범주의 어휘 학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반과 통제반의 어휘 지식과 어휘 범주의 사이즈와 관련된 능력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두 개 반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토익의 어휘 문항을 활용한 어휘 시험과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이고 정형화된 배열이 결국엔 큰 범주의 어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익의 어휘 문항을 활용하여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사전 테스트는 토익 문항 중 질문 문항에 정형화된 배열에 가까운 구문 형태가 있는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공인 인증된 토익 문항 중 어휘 관련 파트에서 35문항을 발췌하여 첫 째 주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어휘 테스트 결과 실험반과 통제반의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3.87$ ,  $p=.221$ ). 또한 첫 째 주에 토익 어휘 테스트와 함께 간단한 설문 조사(해외 경험의 유무,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의 정도 등)를 실시하였다. 해외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7년간 캐나다에서 살다 온 학생은 처음부터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실험반이 71.4%, 통제반이 75.6%로 두 반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 연구 교재

본 연구에서는 연구 교재로 미국의 유명한 시트콤 *모던 패밀리(Modern Family)*, 시즌 2의 에피소드 1~10까지 이용하였다. *모던 패밀리*는 현대 미국을 살아가는 세 가지 대표적인 가족 형태를 보여 준다. *모던 패밀리*는 세 가족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아내고 있다. 자연스러운 일상사를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나 언어적인 측면에서 제 2언어 학습자들이 접근하고 받아들이기 쉬우며, 일상적인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배열 또한 풍부하게 담겨있다. 제 2언어 학습자들이 내용에 몰입하여 자연스럽게 정형화된 배열을 이해하고 흡수하기에 적합하며 현대의 일반적인 영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장 구조 또한 어렵지 않아 본 연구의 교재로 적합하다 판단된다.

### 3.3. 연구 절차

수업은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크게 수업 전 단계, 활동 단계, 정리 단계라는 세 단계로 분류된다. 두 반 모두 동일하게 수업 전 단계에서는 자막과 함께 시트콤을 시청하며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을 인지하도록 한다. 수업 활동 단계에서는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을 자각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수업 정리 단계에서는 자막 없이 시트콤을 시청하고 그날 학습한 특정한 정형화된 배열을 암기하고 정리한다.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당일의 수업에서 제시되는 각각의 정형화된 배열은 모두 동일하다. 통제반은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배열 구조를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실험반은 어떤 상황이나 장면에서, 또는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배열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를 강조하였다. 두 반의 수업은 동일한 교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두 개 반의 구체적인 수업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실험반의 경우, 수업에 들어가기 전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정형화된 배열을 복습한 후 그러한 배열들이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나왔는지를 기억해 보도록 한다. 실험반은 영화 내용과 연계해서 정형화된 배열을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트콤의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반에서는 영화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배열 표현의 뜻을 얘기해 본다거나 우리말 해석을 보고 그에 해당한 배열 표현을 기억해 내도록 한다. 이러한 복습 활동을 한 후 자막과 함께 그날 학습할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수업 활동 단계에서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활동 모두를 활용해서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쓰기 활동은 이중번역 활동을 이용하였는데, 실험반의 경우는 대화의 흐름에 집중해서 번역하도록 하였고 반면 통제반의 경우는 문법에 맞게 번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반에서 다양한 수업 활동은 주로 조별로 진행되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사는 중간 중간 올바르게 의미를 전달해 준다거나 정형화된 배열이 어떤 기능으로 문장에서 사용되었는지, 캐릭터나 사건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때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특별한 강조 사항이나 다른 수업 방식을 인지하여 반응하게 되는 효과를 막기 위해 교수자는 별도로 정형화된 배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내용을 설명하거나 사건이나 캐릭터를 언급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정형화된 배열을 언급한다. 통제반에서도 수업 활동은 주로 학습자 중심의 조별로 진행되고 교사는 수업 활동에서 제시되는 정형화된 배열의 올바른 해석을 전달하거나 배열 표현을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두 반 모두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을 자각하고 기억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 교사는 그날 학습한 정형화된 배열을 정리해서 PPT로 제시해서 학습자들이 인지하도록 한다. 실험반에서는 정형화된 배열이 사용된 앞 뒤 대화를 함께

제시하여 어떤 캐릭터가 어떤 내용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알도록 하였고 통제반에서는 대화를 함께 제시하지 않고 정형화된 표현과 우리말 해석을 정리해서 제시한다. 그런 후 자막 없이 시트콤을 시청하고 수업을 총 정리한다.

### 3.4. 정형화된 배열 자각하기

본 연구는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습 과정 중 특정 상황 속에서 사용된 정형화된 배열을 자각하는 것은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분에 특별히 주목할 수 있도록 밑줄을 그어놓거나 굵은 글자체로 표시하여 눈에 띄게 처리하였다. 실험반의 경우에는 그 배열 표현이 사용된 상황이나 기능을 설명해 주는데 주력하였고 통제반의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 장면은 아버지인 제이(Jay)와 그의 아들인 매니(Manny)의 대화이다.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한 매니의 생일날, 제이가 16세 이상이 가지고 노는 BB 총을 매니에게 선물하면서 벌어드리는 대화이다. 매니는 자신을 아직 어린아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을 애어른처럼 취급하는 제이의 말에 자신이 어린 시절을 충분히 어린이답게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Manny : What do you mean, I was born 16?

Jay : I'm just saying, **you were never much of a kid.** And that's a good thing, 'cause I never liked kids. (to Gloria) You know, **you ought to try the fridge.** 'Cause that's where we found your cellphone.

Gloria : It was only one time, Jay.

And you know I always eat after I talk to my mother.

Jay : (to Manny) Happy Birthday, old man.

Manny : Well, I've forgotten a lot of things in my life. But **what Jay said hit me hard.** I'd forgotten to have a childhood.

실험반에서는 위 장면의 배열 표현들을 시트콤의 내용 흐름과 함께 설명하고 강조한다. 위 장면에서 매니가 자신에게 BB 총을 선물한 제이에게 어린 아이인 자신에게 적합한 선물이 아닌 거 같다고 말하자 제이가 무슨 말이나며 너는 태어날 때부터 16살짜리로 태어났다고 답한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 매니에게 제이는 너는 정말 아이 답지 않다며 대꾸한다(you were never much of a kid). 그리고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자신의 아내인 글로리아에게 냉장고도 뒤져볼 것을(you ought to try the

fridge) 중용한다. 대화의 끝에서 매니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해야 할 일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이가 한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what Jay said hit me hard) 고백한다. 어린 아이가 너무 애답지 않게 굴다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냥 흘러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장면이다.

통제반에서는 much of~의 의미를 먼저 가르치고 not much of~의 형태로 자주 쓰인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you ought to try the fridge에서 ought to와 try의 용법을 각각 설명해 주고 응용해 보도록 한다. what Jay said는 명사절로 주어로 쓰였다는 것과 hit somebody hard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 3.5. 평가도구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 시작 4주차에 정형화된 배열에 관한 1차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실험 9주차에 2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반과 통제반의 1차와 2차 테스트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10주차에 각 학습자들의 정형화된 배열에 관한 만족도와 개인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문항의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또한 영상 자료를 활용한 정형화된 배열의 효율적인 학습 방안을 대한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두 번의 테스트와 개방형 설문 조사를 통해 영상 자료를 활용한 제 2언어 학습자들의 정형화된 배열 학습의 가능성과 그 효율적인 방안을 고찰하였다.

## 4. 연구 결과 및 분석

### 4.1. 1차 테스트와 2차 테스트 결과 비교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이 시트콤의 내용과 문맥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와 언어 문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 그 학습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형화 배열에 대한 1차 테스트와 2차 테스트를 각각 시행하였다. 1차 테스트는 수업 4주차에 치러졌고 2차 테스트는 수업 9주차에 치러졌다. 두 개 반에 테스트 된 시험 유형과 제시된 정형화된 배열 또한 모두 동일하다. 두 번의 테스트는 실험반에서 중점을 둔 영화적 상황과 통제반에서 초점을 맞춘 언어적 힌트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 장면 배경 설명과 함께 정형화된 배열이 포함된 앞 뒤의 대사가 모두 제시되었고 정형화된 배열의 우리말 해석이 함께 제공되었다. 두 개의 테스트는 모두 주어진 빈칸에 우리말 해석에 알맞은 정형화된 배열 표현을 빈칸에 채우는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전체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록 참조). 우선 실험반과 통제반의 1차 테스트 결

과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반과 통제반의 1차 테스트 결과

| 집단  | 테스트 | 평균    | 표준 편차 | 실험반-통제반<br>평균 차 | t      | 유의<br>확률 |
|-----|-----|-------|-------|-----------------|--------|----------|
| 실험반 | 1차  | 22.37 | 5.241 | 1.14            | 2.156* | .000     |
| 통제반 | 1차  | 21.23 | 6.074 |                 |        |          |

\* $p < .05$ 

1차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반의 평균( $M=22.37$ )이 통제반의 평균( $M=21.23$ )에 비해 1.14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 ).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는 교실 환경에서 시트콤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고 교수할 경우, 시트콤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접목하여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는 것이 언어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두 개 반의 2차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차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독립표본  $t$ -test가 이용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반과 통제반의 2차 테스트 결과

| 집단  | 테스트 | 평균    | 표준 편차 | 실험반-통제반<br>평균 차 | t      | 유의<br>확률 |
|-----|-----|-------|-------|-----------------|--------|----------|
| 실험반 | 2차  | 24.21 | 2.573 | 1.73            | 2.593* | .000     |
| 통제반 | 2차  | 22.48 | 3.495 |                 |        |          |

\* $p < .05$ 

위 표를 분석하면 통제반의 2차 테스트 평균 점수( $M=22.48$ )에 비해 실험반의 테스트 평균 점수( $M=24.21$ )가 1.73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한 결과 두 개 반의 2차 테스트 평균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 2차 테스트 결과 또한 1차 테스트 결과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할 경우 특히 그 수업 자료가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문법에 의거한 구조적 분석과 언어적 설명 보다는 영상 자료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줄거리와 상황을 강조하고 기억시켜서 연상적으로 정형화된 배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언어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정형화된 배열에 대해 설명한 통제반에서 사용한 학습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통제반의 학습 방법이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통제반의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SPSS 대응표본  $t$ -test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통제반의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 비교

| 집단       | 테스트 | 평균    | 표준 편차 | 2차-1차<br>평균 차 | t      | 유의<br>확률 |
|----------|-----|-------|-------|---------------|--------|----------|
| 통제<br>집단 | 1차  | 21.23 | 3.521 | 1.25          | 2.957* | .000     |
|          | 2차  | 22.48 |       |               |        |          |

\*p&lt;.05

통제반의 1차 테스트 평균 결과(M=21.23)보다 2차 테스트 평균 결과 (M=22.48)가 1.25 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따라서 통제반의 수업 방식은 그 나름대로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는 데에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결과는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하기 위해 이루어진 통제반의 자연스러운 학습 결과이다. 통제반과 실험반의 학습결과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앞서 살펴보았던 실험반과의 결과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통제반의 학습 방법이 조금 열세했을 뿐이지 통제반의 수업 방식 또한 나름대로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특정 기간 동안 정형화된 배열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 목적을 위해 시트콤의 줄거리 내용과 문맥을 접목하여 정형화된 배열의 쓰임과 기능을 학습한 실험반의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실험반의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 비교

| 집단       | 테스트 | 평균    | 표준 편차 | 2차-1차<br>평균 차 | t      | 유의<br>확률 |
|----------|-----|-------|-------|---------------|--------|----------|
| 실험<br>집단 | 1차  | 22.37 | 2.337 | 1.84          | 2.471* | .000     |
|          | 2차  | 24.21 |       |               |        |          |

\*p&lt;.05

위 표를 살펴보면 실험반의 2차 테스트 결과(M=24.21)가 1차 테스트 결과(M=22.37)에 비해 1.84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0). 이 결과를 통해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실험반의 정형화된 배열 학습 접근 방법이 영상 자료의 내용에 중점을 둘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자들이 장기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시트콤 속 상황과 캐릭터의 특징과 연계지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4.2. 설문조사 결과

설문 조사는 수업 마지막 주에 실시되었으며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개

인적인 의견과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 문항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시트콤에 대한 만족도(아래 1번 문항), 학습 활동에 대한 만족도(아래 2번~5번 문항),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만족도(아래 6, 7번 문항), 수업 전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아래 8번 문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1. *모던 패밀리* 시트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2. 듣기 학습에서 정형화된 배열의 빈칸 채우기나 내용 이해 문항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3. 정형화된 배열을 중심으로 연습한 역할극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4. 정형화된 배열을 중심으로 한 읽기 활동으로 한 조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5. 정형화된 배열의 이중 번역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6. 전체적으로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7. 정형화된 배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적어 주세요.
8. 본 수업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가감 없이 적어주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실험반의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위 설문 조사 문항 중 6번과 7번 문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번~5번의 설문 문항은 정형화된 배열을 익히기 위한 수업 활동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고찰하기 위해 6번과 7번 문항의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쓴 것이어서 동일하거나 일괄된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은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같거나 비슷한 의견이 5회 이상 반복되어 나올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의 의견을 쉽게 정리 분석하기 위해 정형화 학습 배열에 대한 만족 의견과 시트콤 내용과 상황을 강조한 학습에 대한 만족 의견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정형화된 배열 학습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만족  |
|---|
| -매우 만족스럽다. 표현을 덩어리로 쓰다보니깐 영어가 전체적으로 훨씬 쉽게 느껴졌다.                       |
| -덩어리로 된 표현을 익히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면 처음보다 확실히 잘 들린다. 한 단어처럼 쑥쑥 귀에 들리는 게 신기했다. |
| -만족스럽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들이 입에 붙으면 회화할 때 훨씬 쉽게 말할 수 있겠다는                 |

---

생각이 들었습니다.

-덩어리로 익혀두니깐 작문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동안 단어 위주로 무작정 외웠던 방식이 어리석었던 거 같다.

-저는 배열 덩어리로 공부하는 거 강추합니다. 몇일 전에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나왔는데 귀에 꽃히더라구요. 한꺼번에 다 들려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배열들을 많이 알아두면 확실히 영어회화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 아는 것이 힘이다!

---

시트콤의 내용이나 상황 중점 학습에 대한 만족

---

-필이 가족 캠프 얘기할 때 클레어한테 *I like to refer to them as team blue-zer*라고 말한 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너무 웃긴다. 가족 캠프하면 무조건 생각날 거 같다.

-결국 표현을 많이 암기하는 건데 이게 금방 질리거나 지칠 수 있는데 영화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니깐 힘든 줄 모르고 했다.

-전체 가족 중에서 저는 캠프 미첼의 대화가 정말 재밌었고 특히 캠이 미첼한테 빼쳐서 했던 대사들은 다 기억납니다. 정말 제가 빠치면 쓰는 표현들이라 더욱 와 닿았던 거 같아요.

-배열 표현 학습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매니가 마지막에 자기 생일 파티에서 한 대사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즌 10에서 매니 엄청 컷던데요~

-표현만 줄창 외우면 지겹고 금방 까먹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니깐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표현이 많습니다.

---

학습자들은 정형화된 배열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덩어리 표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형화된 배열을 덩어리째 익혀두면 다른 기술, 즉 영어 말하기나 쓰기에 활용하기 유용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영어 회화에서 도움일 될 것이라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말하기를 할 때 단어 하나 하나를 문법에 끼워 맞춰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형화된 배열을 익혀두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일리 있는 의견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특정한 표현들이 한 단어처럼 인식되므로 영어 듣기 활동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단어처럼 귀에 들린다거나 한꺼번에 다 들린다거나 하는 의견은 앞서 말하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형화된 표현을 익혀두면 듣기를 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은 정형화된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을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시트콤의 내용이나 상황을 강조하여 접목시킨 학습 활동에 대해 학습자들의 만족스런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등장인물이나 생일 파티와 같은 특정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함께 대사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의견은 영화 내용 접목 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정형화된 배열을 얼마나 많이 내재화 하느냐가 관건인데 표현들을 개별적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쉽게 지루해지거나 지칠 수 있는데 시트콤 내용과 접목시켜서 학습하니 힘든 줄 몰랐다가거나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쓴 대사인지를 기억하니 기억력이 오래간다는 의견은 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사실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상매체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스토리가 있고 다양한 상황과 문맥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여러 의견 중 필이 제일 웃겨서 기억에 남는다거나 매니의 생일 파티가 감동적이어서 매니의 대사가 잊혀지지 않는다거나, 캠과 미첼이 제일 재밌었으며 캠이 빠졌을 때 쓰는 말이 본인이 현실에서 쓰는 말이었다는 의견 등은 모두 시트콤이라는 매체가 제공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을 학습자들이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특정한 표현들을 익혀서 한 단위로 쓰거나 들리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이러한 정형화된 표현들을 각 표현들 개별적으로 학습할 것이 아니라 시트콤 속 장면을 기억하고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사용했는지를 함께 기억하며 학습하는 것이 정형화된 배열을 장기적으로 내재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실험반 학습자들의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정적인 의견 또한 긍정적인 의견과 마찬가지로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불만족과 시트콤 내용 및 상황 강조 학습에 대한 불만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정형화된 배열 학습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불만족  |
|--|
| -덩어리로 공부하는 건 좋은데 문법적인 설명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  |
| -조금 불만이다. 영화 장면과 함께 그 배열들을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그 전치사가 왜 쓰였는지 궁금한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다. |
| -영화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거 같다.             |
|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살면서 그런 상황에 다 닥치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직독 직해 위주로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 같다.  |
| -지겨울 수 있겠지만 문법 설명 좀 더 보충해 주세요~   |
| 시트콤의 내용이나 상황 중점 학습에 대한 불만족   |
| -너무 많은 장면이 나오니까 사실 나중에는 장면과 대사가 매치되는 것이 좀 많이 헛갈렸다.                                     |
| -불만족. 어떤 상황에서 어떤 캐릭터가 어떤 배열 표현을 했는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표현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
| -필이 하는 말은 너무 멍개져서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
| -영화 줄거리랑 상관없이 실용적인 표현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
| -장면이랑 줄거리는 생각하는데 그때 쓰인 말은 가물가물 하네요~  |

먼저 정형화 배열 학습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배열 표현에 대한 언어적 분석과 문법적 설명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는 정형화된 배열의 정의와 그 기능을 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정형화된

배열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쓰임새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How are you?* 라는 표현을 누구나 쉽게 사용하지만 이 표현을 언어적 분석 없이 자동적으로 사용하지 이것을 *how*가 의문형식이니 주어와 동사가 도치 된 것이라고 분석하지 않는다. 언어적 분석과 문법 설명에 선호 의견들은 모두 정형화 배열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며 교사는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이 왜 필요한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학습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언어적 분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은 본 연구의 학습자들이 메타 언어적 능력 (metalinguistic competence)을 갖고 있는 대학생 성인 영어학습자들의 자연스런 요구라고 생각된다. 교사들은 정형화된 배열에 대해 교수할 경우 이러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각 구성 단어의 의미와 언어적 기능을 분석하여 설명한 후 문맥 속에서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는 기능을 파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시트콤 내용 및 상황을 접목하여 강조한 학습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살펴보면, 장면과 대사가 매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왜 그게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다거나 실용적 표현들을 많이 배우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문맥 속에서 사용된 정형화된 배열 학습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문맥과는 상관없이 언어적 학습에 집중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시트콤의 특정한 줄거리나 상황은 기억나는데 그 상황에서 사용된 표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견은 줄거리나 상황 강조 학습을 행할 시 교사가 가장 유의해야 하는 항목이라 판단된다. 정형화된 배열을 문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황과 장면의 내용을 접목시킴으로써 훨씬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장기 기억으로 갈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상황만 기억나고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용 접근 방식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자들은 영상 자료의 내용이나 상황을 접목해서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기억에 남는 장면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매우 감동적인 부분이나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장면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특정 장면에서 쓰인 배열 표현들이 인상에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 5. 결론

본 연구는 시트콤과 같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할 경우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효과적인지 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교실 현장에서의 학습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반과 통제반을 구성하였고,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할 시 실험반은 시트콤 줄거리를 중심으로 영화적 내용과 문맥을 강조하였고

통제받은 문법과 문장 구조 분석 중심의 언어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시트콤 내용에 중점을 둔 방식과 언어 분석에 중점을 둔 방식 모두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에는 모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형화된 배열의 좀 더 효율적인 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의 방식을 비교하였을 시, 언어적 분석과 문법적 설명보다는 시트콤의 줄거리나 사건 또는 등장인물들의 상황 등과 연계하여 학습한 방법이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나 시트콤과 같은 영상매체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영어 학습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제시되고 그에 맞는 줄거리와 문맥이 풍부하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전후 맥락이 풍성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학습자들이 훨씬 생생하고 실감나게 주어진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김혜정, 2016). 따라서 정형화된 배열을 학습시키는데 영상 자료를 이용할 경우 지나치게 언어적 분석에만 치중한다면 굳이 학습교재로 영화나 시트콤을 사용하는 이유가 감소하게 된다. 영화나 시트콤에는 줄거리가 있고 등장인물들이 처하는 상황이나 특정 사건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며 영상자료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실험 설계 상 통제받은 수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학습 자료로 시트콤을 이용하였지만 그 장점을 배제하고 탈 문맥화된 상황에서 언어적 학습에 집중시켜 교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런 점을 부각하여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정형화된 배열은 제 2언어의 학습과 교수에 있어서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경험한 바 있겠지만 대다수의 구어적 문장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여러 개의 단어를 문법적 규칙에 맞추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배열이나 관습화 된 패턴, 또는 특정화 된 구문이 일상의 대화에서 들리는 유창한 표현들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정형화된 배열은 앞서 밝혔든 제 1언어뿐만 아니라 제 2언어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속도를 효율적으로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언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제 2언어 학습자들과 교수자들 모두 정형화된 배열을 자각하고 그 기능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언어 학습 시 이것의 습득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 방식 외에 흥미로운 상호작용적인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이 좀 더 다채롭게 개발 될 필요가 있겠으며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혜정. (2016). 영화를 활용한 명시적 영어 거절 화행 학습에 대한 연구. *언어학*, 24(1), 71-94.

- 김혜정. (2017). 제 2언어, 문화 및 윤리 교육 자료로서의 영화 음악 활용: 라이온 킹 OST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509-519.
- 유도형. (2015). 영화 담화의 화용적 특성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학*, 23(1), 161-181.
- 이지현, 이자원. (2014). 미드를 통해 본 어휘접근법의 허와 실. *영상영어교육*, 15(1), 175-195.
- Alali, F. A., & Schmitt, N. (2012). Teaching formulaic sequences: The same as or different from teaching single words? *TESOL Journal*, 3(2), 153-180.
- Bishop, H. (2004). Noticing formulaic sequences: A problem of measuring the subjective. *LSO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 15-19.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Bardovi-Harlig, K., & Vellenga, H. E. (2012). The effect of instruction on conventional expressions in L2 pragmatics. *System*, 40, 77-89.
- De Bot, K., Paribakht, S. T., & Wesche, B. M. (1997). Towards a lexical processing model for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SSLA*, 19(3), 309-329.
- Ellis, G., & Brewster, J. (1990). *The storytelling handbook for primary teacher*. London: Penguin.
- Ellis, R. (1993). The structural syllabu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27, 91-113.
- Ellis, R. (2002). Methodological options in grammar teaching materials. In E. Hinkel & S. Fotos (Eds.), *New perspective on grammar teaching in second language classroom* (pp. 155-18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rman, B., & Warren, B. (2000). The idiom principle and the open choice principle. *Text*, 20(1), 29-62.
- Herron, C., York, H., Corrie, C., & Cole, P. S. (2006). A comparison study of the effects of a story-based video instructional package versus a text-based instructional package in the intermediate-level foreign language classroom. *CALICO Journal*, 23(2), 281-307.
- House, J. (1996). Developing pragmatic fluency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Routines and metapragmatic awarenes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8(2), 225-252.
- Hsu, T. J. (2007). Lexical collocations and their relation to the online writing of Taiwanese college English majors and non-English majors. *Electronic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4(2), 192-209.
- Hsu, T. J., & Chiu, C. (2008). Lexical collocations and their relation to speaking

- proficiency. *The Asian EFL Journal*, 10(1), 181-204.
- Jones, M., & Haywood, S. (2004). Facilitating the acquisition of formulaic sequences: An exploratory study in an EAP context. In N. Schmitt (Ed.), *Formulaic sequences: Acquisition, processing and use* (pp. 269-300).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 Keshavarz, M. H., & Salimi, H. (2007). Collocational competence and cloze test performance: A study of Iranian EFL lea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7(1), 81-92.
- Khodadady, E., & Shamsaei, S. (2012). Formulaic sequen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peaking and listening abilities. *English Language Teaching*, 5(2), 39-49.
- Kim, B. G. (2011). A study of teaching communicative grammar through multi-media technology. *STEM Journal*, 12(2), 143-165.
- Laufer, B., & Waldman, T. (2011). Verb-noun collocations in second language writing: A corpus analysis of learners' English. *Language Learning*, 61(2), 647-672.
- Lewis, M. (2009). *The idiom principle in L2 English: Assessing elusive formulaic sequences as indicators of idiomaticity, fluency, and proficiency*. Saarbrücken: VDM Verlag Dr. Müller.
- Martínez, I. B. (2007). A story-based approach to teaching English. *Encuentro*, 17, 52-56.
- Meunier, F., & Granger, S. (Eds.). (2008). *Phraseology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 Nemeth, N., & Kormos, J. (2001). Pragmatic aspects of task performance: The case of argumentation. *Language Teaching Research*, 5(3), 213-240.
- Oller, J. Jr. (1983). Some working ideas for language teaching. In J. Oller, Jr & P. R. Amato (Eds.), *Methods that work* (pp. 3-19). Rowley, MA: Newbury House.
- Schmitt, N. (2010). *Researching vocabulary: A vocabulary research manual*.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an.
- Schmitt, N., & Carter, R. (2004). Formulaic sequences in action: An introduction. In N. Schmitt (Ed.), *Formulaic sequences* (pp. 1-22).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 Takimoto, M. (2006). The effects of explicit feedback on the development of pragmatic proficiency. *Language Teaching Research*, 10(4), 393-417.

- Wray, A. (2000). Formulaic sequence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Principle and practice. *Applied Linguistics*, 21(4), 463-489.
- Wray, A. (2002). *Formulaic language and the lexic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ay, A. (2008). *Formulaic language: Pushing the boundaries*.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I want you to (6. \_\_\_\_\_).

Jay : Okay, well, I may have noticed some tiny little mistakes you might want to (7. \_\_\_\_\_).

[8-15] 다음 상황과 우리 말 해석을 읽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클레어와 필 부부의 집. 매니 생일 파티 가기 전.

클레어 : 여보, 어서. 이러다 늦겠어. 가자.

필 : 어, 그래, 가족 캠프 참가서 작성하고 있었어.

클레어 : 어.

필 : 댄스 경연에서 못 이기면 왕관을 지키러 돌아갈 수가 없으니깐.

클레어 : 흠. 맞아. 어서, 여보.

필 : 그런데 왕 자리를 얻으려면 말야... 차라리 죽이는게 낫지.

(인터뷰) 매년 여름, 가족 캠프에서 일주일을 보내요. 일상적인 캠프랑 같은데, 가족과 함께 하는 거죠

클레어 : 그렇죠.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필.

필 : 작년에 컬러 위에서 진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네.

클레어 : 아니야.

필 : 아내는 파란 팀이었는데... 저는 파란 루저 팀으로 부르고 싶죠. 저는 하얀 팀이었구요.

클레어 : 맞아요.

필 : 하얀 팀이 아니면 옳지 않다구!

클레어 : 필!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는 거야?

Claire : Honey, come on. 8. \_\_\_\_\_ . Let's go.

Phil : Yeah, yeah, just (9. \_\_\_\_\_ ) to family camp.

Claire : Ohh.

Phil : You don't win the "dirty dancing" competition and not go back to defend your crown.

Claire : Hmm. That's right. Come on, honey.

Phil : But 10. \_\_\_\_\_ ... You better kill him.

(Interview) Every summer, we (11. \_\_\_\_\_ ) at family camp. It's just like regular camp, but with the family!

Claire : Yeah. I don't think that (12. \_\_\_\_\_ ), Phil.

|        |   |
|--------|---|
| Phil   | : Somebody still (13. _____) last year's color war.   |
| Claire | : Not.  |
| Phil   | : She was on team blue...Or as I like to (14. _____) as team blue-zer.<br>And I was on white. |
| Claire | : That's good.  |
| Phil   | : And if you ain't white... You ain't right!  |
| Claire | : Phil! 15. _____.  |

[16-18] 다음 상황과 우리 말 해석을 읽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글로리아와 제이 집. 생일 파티 참석 전. 차 열쇠를 찾고 있는 글로리아.

글로리아 : 난 열쇠 안 잃어버렸어. 어떤 놈이 집에 들어와서 훔쳐간 거라구!

제이 : 차는 두고서 말이지.

매니 : 제가 태어날 때부터 16살 이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이 : 그냥 넌 너무 애 같지 않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건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난 애들을 안좋아하거든. (글로리아에게) 저기, 냉장고도 뒤져봐야 해. 당신 핸드폰 찾았던 데잖아.

글로리아 : 딱 한번이었거든, 제이. 내가 우리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항상 먹어대는 거 알잖아.

제이 : (매니에게) 생일 축하해, 애 늙은이야.

매니 : (인터뷰) 글쎄, 제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망각하죠. 그런데 아버지(제이)가 한 말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어린이답게) 보내는 걸 망각한 거죠.

|        |   |
|--------|---|
| Gloria | : I didn't lose them. Somebody came in here and stole them!   |
| Jay    | : And left the car.   |
| Manny  | : What do you mean, I was born 16?  |
| Jay    | : I'm just saying, you were never (16. _____). And that's a good thing, 'cause I never liked kids. (to Gloria) You know, you ought to (17. _____). 'Cause that's where we found your cellphone. |
| Gloria | : It was only one time, Jay. And you know I always eat after I talk to my mother.   |
| Jay    | : (to Manny) Happy Birthday, old man.   |
| Manny  | : (Interview) Well, I've forgotten a lot of things in my life. But what Jay said (18. _____). I'd forgotten to have a childhood.  |

[19-25] 다음 상황과 우리 말 해석을 읽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제이와 글로리아, 매니의 집.

글로리아 : 제이, 나랑 같이 쇼핑 몰 갈래요?

제이 : 아니, 사실, 오늘 배가 좀 이상한데.

글로리아 : 어쩐 좋아, 자기야. 애기 침대 가게 들러서 누위 있을래, 그럼 내가 예쁜 옷 사 줄게, 어때?

제이 : 글로리아는 미국인들을 애기라고 생각하죠.

글로리아 : 그러니깐, 콜롬비아에서는 콧물 좀 난다고 아니면 어깨 좀 탈골되었다고 병원으로 달려가진 않거든요.

매니 : 증상이 어떻게 돼요? 속이 메스꺼워요? 부었어요?

글로리아 : 웹 사이트로 의사 의견 보지 말라고 했지?

매니 : 그냥 아빠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복통은 많은 걸 의미한대요. 장폐색일 수도 있대요. (제이에게) 열 나오?

글로리아 : 그만해! 매니, 아빠는 괜찮아. (제이에게) 애한테 괜찮다고 어서 말해줘요.

제이 : 난 괜찮단다.

|        |   |
|--------|---|
| Gloria | : Jay, you wanna (19. _____) ?  |
| Jay    | : No, actually, my stomach's (20. _____) today.   |
| Gloria | : Oh, I am so sorry, papi. Maybe we'd stop first at the crib store and (21. _____) and I buy you a little dress, hmm? |
| Jay    | : Gloria thinks Americans are babies.   |
| Gloria | : Well, in Colombia we couldn't (22. _____) for every little snuffle or dislocated shoulder. Okay, good.              |
| Manny  | : Jay, 23. _____? Nausea? Bloating?   |
| Gloria | : What did I say about get off that crazy doctor Web site?  |
| Manny  | : 24. _____. Stomach pains can mean a lot of things: Intestinal blockage. (to Jay) 25. _____?                         |
| Gloria | : Stop it! Manny, he's fine. (to Jay) Tell him you're fine.   |
| Jay    | : I'm fine.   |

[26-33] 다음 상황과 우리 말 해석을 읽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주차장. 필의 차 안. (동승자: 제이, 루크, 매니)

제이 : 아, 드디어 저기 자리가 났다.

- 필 : 애들아, 가슴 터질 듯이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첫 댄스파티라니! 이제 곧 남자가 되겠구나. 남자가 된다는 건 멋진 옷을 사러 가는 것 보다 더 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
- 제이 : 맞아. 곧 가슴에 털도 날 테고 전화를 받으면 사람들이 여자로 착각하지도 않을 거야. (다른 여자 운전자에게) 빨리요, 아줌마.
- 매니 : 사실 테이지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운전한 게 아니구요.
- 제이 : 본적 없는데.
- 매니 : 드라이빙 미스 테이지 라는 영화 말씀 드린 거예요.
- 제이 : 너 오늘 말이 좀 많네, 어? (다른 남자 운전자에게) 저기요, 거기 우리 자리거든요! (필에게) 자네 뭐하고 있나? 자네 주차 자리 슬쩍 뺏어 가게 놔둘 건가?
- 필 : 그럴 가치가 없어요. 애들아, 남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딱 하나 알아야 할 건 말이야...
- 제이 : 다른 사람이 네 것을 뺏어가게 되서는 안된다는 거야.
- 필 : 그게 주차장이고 다른 데도 자리가 많을 때는 말고 말이야.
- 제이 : 픽드 듣기 좋은 말이군, 필. 받아 적어야겠어. 핸드백에 립스틱을 갖고 다니냐?
- 필 : 저는 장인 어른 좋아합니다. 장난인줄 아세요? 장인 어른은 제 사람입니다. 물론,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게 장인 어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       |  |
|-------|--|
| Jay   | : Ah, finally. There's a spot.   |
| Phil  | : Oh. Guys, I am just (26. ) right now. Your first dance. Soon you're gonna be men. I want you to know there's more to being a man than just shopping for fancy outfits. |
| Jay   | : Yep. Pretty soon you get some hair on your chest. You start (27. ), people don't think you're ladies. (to another woman driver) Come on. Today, Miss Daisy.            |
| Manny | : Actually, Miss Daisy was the one (28. ), not the one driving.  |
| Jay   | : Never saw it.  |
| Manny | : It's called Driving Miss Daisy.  |
| Jay   | : You got a (29. ) on you today, you know that? (to another man driver) Hey, that was our spot! (to Jay) What are you doing? You gonna let him (30. )?                   |
| Phil  | : Not worth it. Boys, here's the only thing you gotta know about   |

|      |   |
|------|---|
|      | being a man ...   |
| Jay  | : Never let someone take (31.                    ).   |
| Phil | : Unless it's just a parking spot and there's plenty of others.   |
| Jay  | : That's sweet, Phil. You ought to (32.                    ).   |
|      | You got any lipstick in your purse?   |
| Phil | : (Interview) I love Jay. Are you kidding me? He's my boy. Yeah, he gives me a (33.                    ), but that's the deal with a father-in-law. |

### 김혜정

02707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전화: (02)910-5947

이메일: naa4907@kookmin.ac.kr

Received on December 27,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6, 2018

Accepted on March 31, 2018